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업체 ④

서린테크

수입제품 국산화 신상품 개발

기술·영업 등 신용본위 경영

2004년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외국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 나서고 있는 서린테크(대표 현병구·사진)는 포장, 인쇄 자동화장비를 개발했다.

그라비아 인쇄기의 인쇄핀트 및 출 슬리터, 라미네이터, 코팅기 등 Web(두루마리 형태)의 원단을 권취하거나 권취하면서 가공라인에서 중요 콘트를 부분인 정력제어, 사행제어와 더불어 제품의 검사까지에 기여하는 수입 자동화 장비의 납품 및 시운전을 하고

있다.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서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스트로보 스킵프 국산화 All Digital Scope (인쇄물 감시장비), 2006년 WEB GUIDER SYSTEM 국산화, 사행제어장치 국산화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서린테크 현병구 대표는 "창업 초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컨버팅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장비 수년간의 현장경험과 설치 시운전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 이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의 효

과와 더불어, 자동화장비의 국산과 수입장비의 기술차이를 최소화 내지는 넘어설 수 있는 장비의 보급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행제어장치(Web guider system), 비데오스캐너(인쇄물 모니터링 감시장비), 스트로보 스킵프를 개발완료 하여 현장에서 그 몫을 충실히 하여 USER의 생산에 필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서린테크의 기업이념에 대해 현 대표는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점점 가속하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User에게, 현재 필요로 하는 요망, 제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의 장비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까지 스스로 연마하며, 누적된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여, 열의와 성의와 창의를 가지고 임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만나서 좋았다"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업, "사용해서 좋았다"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업, "일하고 있어 좋았다"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진보하는 인간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린테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스피드로 진행되는 공정을 잔상 효과를 이용해 정지되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좋은 것은 경영컨설팅은 물론 세무회계 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해서 들여온 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자본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어서 동종업체에게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단점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한 제품의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제품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현 대표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서린'의 의미는 선린우호의 관계, 서로 이 웃한다는 뜻이다.

현 대표는 상거래에서는 신용이 가장 중요하며 기술과 영업도 믿음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 대표는 원천기술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화된 제품을 경험하고 현장습득하여 수입해서 들여온 것을 국산화하는 작업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0 평강식물원

12가지 테마가든의 진귀한 아름다움



원장 이 환용

평강 식물원은 이러한 사명과 운영목표로 국제적인 식물원들과 경쟁하며 국내 식물원 문화를 증진시키고 일반인에게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가 식물 유전자원의 다양성확보에 기여하고자 조성되었다.

식물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적,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와 로키산맥 등 세계의 고산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 식물들과 아직 국내에서는 재배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병초류를 포함하여 5000여 종의 식물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인 1800여 평의 암석원과 50여 개의 연못에 수련들을 모아놓아 개화시기에 그 찬란함을 자랑하는 수련원,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습지원, 사시사철 늘푸른 잔디광장, 자생식물원, 이끼원, 고사리원 등 12개의 테마로 조성되어 있으며 약재로 사용되는 식물들을 체계적으로 재배, 관리하여 한방약재의 연구 및 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약초원이 조성되고 있다. 평강 식물원은 국가 식물자원의 보존과 국민들을 위한 자연생태 학습에 최선함으로써 식물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환용 원장은 어린 시절 학교로 오가던 울창한 숲이 우거진 오솔길은 놀이터요, 생활공

자연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의 복원, 보존 및 연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평강식물원(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688 원장: 이 환용)은 회복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유용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물원의 우수성과 건실한 경영,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식물원 속의 약선()레스토랑 "엘름" 즐겁고 유익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강식물원의 운영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에 처한 생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며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식물종 수집과 증식, 멸종 위기식물의 번식, 재배, 보존 및 관리한다. 2. 자연을 통한 힐, 안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과 식물의 연구를 통한 심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3. 자생식물원과 약용식물원을 기초로 유용자원개발에 노력하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생태, 원예, 조경 등 관련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4. 식물과 식물인 연구, 기록의 체계화와 타 식물원과의 연계, 정보 제공 및 교환에 힘쓰며 대중과 전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차세대 위한 식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간의 일부분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자연 만큼은 풍족한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그 후 산업의 개발로 인해 옛 정취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녹색 무성했던 기억 속의 자연은 언젠가 그 모습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명성산, 산정호수 자락에 평강식물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숲의 신비와 습지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배우는 살아있는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을 통해 참가자(초등학생, 성인)들이 자연생태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균형 잡힌 자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식물원에서 재배한 재료와 각종 한방 약재들을 가미한 약선요리를 선보이는 엘름(Elm: 느릅나무)레스토랑에서는 각 계절에 어울리는 최상급의 신선함을 유지한 재료로 만든 웰빙음식을 만날 수 있다. 평강식물원 이용시간은 5월~10월 오전 9시~ 오후 8시, 11월~4월 오전 10시~ 오후 4시이며 폐장 1시간 전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T.031)531-7751, F.031)534-7791

이 환용 원장

- 1959. 8. 10 서산 산 리 생.
 - 1977. 2 서 성 고 .
 - 1985. 3 국 대 한 의 과 입 .
 - 1991. 2 국 대 한 의 과 .
 - 1993. 삼지대 대 원 사 과 정 입 .
 - 1995. 삼지대 대 원 사 과 정 .
 - 1999. 8. 10 물 원 실 사 직 .
 - 2002. 경 대 한 의 사 과 정 입 .
 - 2005. 경 대 한 의 사 과 정 .
 - 2006. 5. 1 물 원 공 공 .
- 교 중 이사, 후원이사.
과 이사, 사 의 교 안 수 사.



재테크 20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초등 3학년과 7살짜리 자녀를 두고 있는 민수 엄마. 올해 큰 조카가 서울의 내로라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좋아서 형님께 축하 전화를 걸었다.

"형님, 축하드려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데 참 대단하세요."

"뭘, 고마워, 동서."

"큰 덕 한번 내셔야겠어요?"

"큰, 덕은 무슨. 대학등록금이 얼마든, 요즘 등록금 격정에 잡이 다 안돼 지경이야."

하시며 큰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아파트로 옮길 생각이신단다.

큰 형님께 사업이 불경기라 그러시나 싶은 차에 대학 1년 등록금이 천만원에 이른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냥 지나치던 뉴스였을 텐데 형님의 두거왔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등록금 천만원에 교재비, 생활비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니 갑자기 납 일이 아닌 듯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를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대책이 안산다며 컨설팅을 의뢰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를 좋은 대학만 보내면 한숨 돌리겠지 하지만 사실 대학 입학으로 부모님의 걱정이 끝나지는 않는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해서 학생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큰 뉴스로 부각되다가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식의 국가 경쟁력인 세상에 대학의 질적인 개선이 급선무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아이들 대학 학자금을 준비해야 걱정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민수 엄마와 함께 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 규모를 계산해 보았

다. 매년 등록금을 천만원이라 하고 연평균 등록금 상승률을 8% 가정한다면 올해 11살인 큰아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9천729만 원, 7살인 작은 아이는 1억2천255만원으로 약 2억2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가슴이 짝 막히는 거액이다. 갑자기 두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두드러라,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2억2천만원을 10년 동안 마련하기 위해서 이월 4%대의 은행에 저축을 한다면 월 156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은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 이월의 수단을 찾아보아야 한다. 10여년의 시간의 힘을 이용하여 복리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근 각광받는 펀드와 변액유니버설 보증을 추천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출시된 몇몇 어린이 펀드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등장한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장은 자유

입출금이 되면서 보장도 받을 수 있고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더 나아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수 엄마는 위의 두 상품에 각각 20만원씩 가입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추가로 금액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막연했던 것이 구체화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목표한 자금을 만들어 보기로 다짐했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라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26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자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압연된 고무바닥재를 냉각물에 걸어주던 중 물 사이에 협착

▶재해발생 개요
고무바닥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압연된 고무바닥재를 냉각(Cooling) 물에 걸어주는 과정에서 냉각물과 물 사이에 팔 부위 등이 밀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에 의한 위험방지 미흡
초기 생산이나 생산품 사양 변경 때마다 냉각물의 저속 회전상태에서 시트를 인력으로 냉각물에 감아주고 있어 냉각물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에 신체의 일부가 밀려 들어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나. 동력차단장치 설치 부적절
동력차단장치는 작업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비상시 즉시 전원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지 않음.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회전축에 의한 위험방지 실시
냉각물에 의해 위험점이 형성되



지 않도록 냉각물과 물 사이를 이격시키고 작업자의 접근방지 및 위험방지를 울 등을 회전축 해당부위에 설치.
나. 동력차단장치 설치보완
냉각공정에 설치된 동력차단장치는 위험발생시 작업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으로 동력차단장치 설치 개수를 늘리거나 로우프식 급정지장치 형태 등으로 보완 설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

다른 노후대책보다 유리한 편... 약 10만원은 내야 현재 55세 이상은 5년만 가입해도 특례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강제 가입이 특징이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는 강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당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특징과 향후 혜택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면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다른 노후대책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은, 높은 또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누구나 가입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보상받게 된다. 때문에 부부가 가입하면 그 만큼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중위수 소득으로 또는 그 소득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10만8900원(06.4.1 현재 기준)이상 납부해야 한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국민연금이 고갈돼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법으로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만 보더라도 다른 금융기관 운용수익의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도 해도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